

우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판)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080-023-4000

명예회장·노태환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 / 논설고문·고은 / 편집국장·최정희 / 인쇄인·김규식 / 등록번호·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737-8881 / 편집국·722-4162 / FAX·737-0698 / 광고국·737-0692 / 구독신청·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2월 2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최근 북한 고위층 인사들의 잇따른 탈북과 인민들의 남한 귀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 경제현실이 심상치 않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인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부처님이 설하신 평화와 화합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보살마하살은 온갖 중생에 대해 부모 형제 처자 제 몸 같은 생각을 갖는다. <대반야경>

공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이끌어 자기에게 향하게 하면 다행 것이 없어진다. <열반경>

늘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고난의 분쟁을 화합시키면, 반드시 해탈문을 여는 것이 되리라. <보요경>

외도가 분쟁을 일으켜서 한대도 같이 싸우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뇌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사경인연경>

범부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켜, 진실하다느니 진실하지 않다느니 하는 대립 관념에 빠져 있기 일췌하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없으니 현상 세계의 실상을 살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에는 다 다툼이 없느니라. <승사유법천소문경>

보살은 세상에 무기를 만드는 일이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는 가지 기와 조각이나 돌덩이 언덕 따위는 다 저절로 제거된다. <보살행오십인경>

3·1절 77주년 특집 10면

'청와대 오찬' 안팎 3면

'입학선물은 불서로' 11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해외전법사 한자리에

조계종, 부처님오신날 '국제포교 30년 기념법회'

20개국 300여스님 '한국불교 세계화' 제2도약 모색

해외포교에 전념하는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해외 포교를 전망하는 '국제포교 30주년 기념법회'가 개최된다.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 기념행사의 하나로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포교사 30주년 기념법회'는 지난 68년 송산스님(화계사 조실)이 해외포교를 시작한 이래 전세계 20개국에 160여곳에 개설한 선원장을 비롯, 해외 사찰에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 등 3백여명의 국제포교사들이 총집결할 예정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포교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해외포교를 전망하고 사례보고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포교원이 지난해부터 국제포교사 양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게 되는 이번 기념법회에서는 해외포교 30년을 회고하고 향후 국제포교를 전망하는 각종 세미나 및 사례보고 토론회로 진행된다.

이번 법회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세계화 및 국제포교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총무원도 이번 법회가 해외포교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중요성을 감안 별도의 예비용을 편성해 집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화계사 부주지 상광스님은 "전세계 선원장 산원장과 해외사찰에서 포교하고 있는 스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포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의 국제포교는 68년 송산스님이 일본 도쿄에 흥법원을 개설하면서 본격화됐다. 현재 조계종에 등록된 해외사찰은 130여곳. 송산스님은 러시아 폴란드 등 동구권국가들은 물론 남아공화국 브라질 전세계 20여개국에 160여곳의 선원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아름 선원도 미국의 뉴욕과 오하이오, 아르헨티나 등 8곳에 지부를 설치해 현지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성운 기자>



국내 최초 '황금사원' 왕실의 왕들이었던 서 울 김현동 수국사(주지 자용)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법당을 황금으로 도금한 '황금사원'을 건립하고 있다.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있는 황금법당은 외9포, 내15포, 1'488㎡ 규모로 결연은 물론 마룻바닥 가솔 손잡이에 이르기까지 기와를 제외하고는 온통 순금으로 도금하는 불사가 진행중이다. 약 60억원의 예산으로 순도 99.9%의 금을 사용했다. <사진=고영애 기자>

조계종 교육개혁 대책위 결성

'성직자양성 대학원 부당' 위헌신청 방침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제2차 종교교육개혁방안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에 대해 교계의 반대가 거세게 일고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6일 총무원회에서 "성직자양성대학원의 입학자제가 부당하다"며 부당성과 무효화를 목적으로 하는 (가칭)불교대책위원회를 이날에 결성기로 했다.

불교대책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종교 고교 전문인사들로 구성하고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의 위헌적요소를 파악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제출하기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지난 15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전국승가대학원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제2차 교육개혁안은 선교정치의 일환'이라며 "교육관계법 전문대학원조항에 국내종교의 성직자를 포괄하도록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새불교운동 전국승가회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도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종교개혁적 교육관계법을 시정하고 종교차별적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종교적 국가적 관점에서 종교지도자 양성전문대학원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종교화합 도와주길" 당부

김대통령 교계 지도자 13명 초청 오찬

송원주(조계종) 최해초(대교종) 정문덕(천태종) 김락해(진각종) 이흥과(관음종)총무원장 각종) 이흥과(관음종)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불교계 지도자 13명은 지난 21일 김영삼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 오찬을 함께 하며 최근의 불교계 현안과 시국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관련기사 3면>

불교계가 '1.21 김대통령 국방부 중앙교회예배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날 오찬은 시종일관 매우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절대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편애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교에 많은 지원을 했다"며 "종교갈등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불교 지도자들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다종교사회에서는 종교인들이 타종교를 서로 존중하며 공존 공영하는 자세를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풍토가 조성되도록 총무원장을 비롯한 각종교 지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 불교TV가 케이블TV 최초로 독도에 위성케이블 수신 시스템을 설치. 오는 3월부터 독도에서도 부처님의 법음을 시청할 수 있게됐다.

불교TV '우리땅' 독도에 위성 수신시스템 설치

절해고도 독도에서도 부처님의 법음을 케이블TV를 통해 접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독도에 케이블TV가 최초로 불교TV가 위성수신 시스템을 오는 3월1일 무상으로 설치, 불교TV를 비롯 16개 케이블채널시청이 가능하게 된 것.

이번 불교TV의 독도 위성수신 시스템 설치작업은 현재 민간단체에서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독도 사랑하기 운동과 더불어 불교계에서도 '독도지킴이'에 한 몫을 다 한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기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불교TV 사장 태용스님은 "독도에서 케이블TV를 시청하게 된다는 것은 독도를 단순히 우리국토의 경계로서가 아닌 우리문화가 살아 숨쉬는 땅으로 공유하기 위한 첫 시도로 기억될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학위 수여식

학사 3천165명 배출

동국대(총장 송석규)는 지난 23일 교내 중앙당에서 96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갖고 박사 48명 석사 2천444명 1천7백42명의 학사를 배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송석규 총장은 식사를 통해 "비지의 세계로 떠나는 졸업생의 장도에 격려와 축하를 보낸다"며 "경양과 화해를 몸소 실천하여 받아오는 태평양시대 새벽을 밝히는 것이니 태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주염퍼스도 지난 26일 교내 문무관에서 석사 6명 석사 1천4백23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한편 이번 졸업식에서는 65년 농림대학 재학중 한일비준 반대대모에 참가했다 희생되고 김중배씨에게 명예농학사 학위가 수여됐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ROM, 인터넷,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 법회·행사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빌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